

구.약.편

홍성민 <<< 한국성서학연구소 비상임 연구원

1. 본문: 에스겔 26장 20절

가. 히브리어 본문

וְהוֹכַדְתִּיךָ אֶת־יִרְדְּנֵי בּוֹר אֶל־עַם עוֹלָם וְהוֹשַׁבְתִּיךָ בְּאֶרֶץ סַחְתָּיִת כְּקִרְבּוֹת מִעוֹלָם
אֶת־יִרְדְּנֵי בּוֹר לְמַעַן לֹא תִשָּׁבִי וְנִתְתִּי צָבִי בְּאֶרֶץ חַיִּים

나. LXX(70인역) 본문

καὶ καταβιάσω σε πρὸς τοὺς καταβαίνοντας εἰς βόθρον πρὸς λαὸν αἰῶνος καὶ κατοικιῶ σε εἰς βάθη τῆς γῆς ὡς ἔρημον αἰώνιον μετὰ καταβαινόντων εἰς βόθρον ὅπως μὴ κατοικηθῆς μηδὲ ἀνασταθῆς ἐπὶ γῆς ζῶης

2. 본문번역

가. 개역개정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

니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나.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에제키엘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옛사람들에게 내려가게 하겠다. 그리고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저 아래 땅, 태고의 폐허에 살게 하여 사람들이 다시는 네 땅에서 살지 못하고, **네가 다시는 산 이들의 땅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

다. 새번역

너를, 구렁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 옛날에 죽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렁이로 내려간 사람들과 함께 저 아래 깊은 땅 속, 태고적부터 황폐하여진 곳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여, 네가 다시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거나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한 모퉁이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 NIV

then I will bring you down with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to the people of long ago. I will make you dwell in the earth below, as in ancient ruins, with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and you will not return or ***take your place in the land of the living.***

마. KJV

When I shall bring thee down with them that descend into the pit, with the people of old time, and shall set thee in the low parts of the earth, in places desolate of old, with them that go down to the pit, that thou be not inhabited; ***and I shall set glory in the land of the living;***

바. JPS

then will I bring thee down with them that descend into the pit, to the people of old time, and will make thee to dwell in the nether parts of the earth, like the places that are desolate of old, with them that go down to the pit, that thou be not inhabited; **and I will set glory in the land of the living;**

사. 본문에 대한 사역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옛 백성에게로 내려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옛적부터 황폐한 곳 같은, 땅 깊은 곳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살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거주하지 못하도록¹⁾ 내가 산 자들의 땅에 영광을 줄 것이다.

3. 동사분해

הוֹרְדָהְךָ (וְךָ; [go down, descend]의 히 필 바브연속완료, 1인칭, 단수 <내가 (너를) 내려가게 할 것이다>) / הוֹשַׁבְךָ (וְךָ; [sit, dwell]의 히 필 바브연속완료, 1인칭, 남성, 단수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 תִּשְׁבֵּי (וְךָ; [sit, dwell]의 칼, 미완료, 2인칭, 여성, 단수 <내가 거주할 것이다>) / תִּתֵּן (וְךָ; [give]의 칼, 바브연속완료, 1인칭, 단수 <내가 줄 것이다>)

4. 용어 및 문법 사항 설명

1) קָהָרְבוֹת : <코호라붓>은 <호르바>(קָהָר פֶּהַר, 황폐함)의 복수형에 전치사 <키>(כִּי)가 결합된 형태로 “황폐한 곳 같은”(like, as)으로 번역할 수 있다. 칠십인역도 <호스 에 레문>(ὥς ἔρημων)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몇

1) BHS의 분리기호 아트나흐 (א)를 감안하여 /로 전반절과 후반절을 구분하였다.

몇 히브리어 사본들과 탈쿰, 시리아 역본은 “황폐한 곳 가운데서” <보호라봇>(מִתְּרִבּוֹת)으로 되어 있다.

2) תָּשׁוּבָּ : <테셰비>는 “네가 거주할 것이다”로 칼, 미완료, 2인칭, 여성, 단수 형태다. 이러한 형태는 에스겔에서 여러 번 나타난다(겔 29:11; 36:35 등). 그러므로 이를 모음 부호를 다시 붙여 <타슈비>로 읽으며 ‘돌아오다’ <슈브>라는 동사로 볼 필요는 없다.

3) צָבָּ : <제비>는 ‘영광 아름다움’이란 뜻이다(사 13:19; 24:16; 겔 7:20; 20:6, 15; HALOT 998). 특히 다니엘 11장 16, 41절에 쓰인 ‘영화로운 땅’ <에레즈 하제비>는 구체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문에 쓰인 경우는 다소 논쟁이 있다. 침멀리와 BHS 에스겔 편집자 등은 칠십인역을 도움삼아 <베나탓티> + <제비>를 <베티트앗제비>(בְּתִיתֵי צָבָּ) “네가 (일)어설 것이다”로 고쳐야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침멀리는 아예 “네가 산 자의 땅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으로 문맥을 완전히 새롭게 고쳤으며(Zimmerli, *Ezekiel* 2, 32), BHS 편집자는 “네가 산자의 땅에 돌아와 서지 못하도록”으로 읽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블록(D. I. Block)은 문맥을 그대로 살리되 부정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 “네가 거주하지 못하도록, 영광을 발산하지 못하도록”으로 번역하고 있다(Block, *The Book of Ezekiel* cp. 25-48, 47). 한편 탈쿰은 마소라를 “내가 이스라엘 땅에 기쁨을 준다”고 해석했다(Zimmerli, *Ezekiel* 2, 32).

그러나 20절을 단락 구분기호 아트나흐< 〉를 기준으로 본다면 <베나탓티> 앞에서 전반절이 끝난다. 그러므로 후반절을 따로 구분해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산 자들의 땅에 영광을 줄 것이다”가 된다. 두로는 땅 속 깊은 곳에 내려갈 것이므로, 다시는 두로가 사람 사는 땅이 되지 못할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아훼께서 산 자의 땅에 영광을 두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5. 설교에 적용하기

에스겔 26장은 두로의 멸망을 예고하는 네 개의 커다란 단락(26장[두로 성에 대한 예언], 27장[두로 성에 대한 애가], 28:1-10[두로 왕에 대한 예언], 28:11-19[두로 왕에 대한 애가])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이다. 아울러 26장은 4개의 소단락으로 나뉜다(1-6절, 7-14절, 15-18절, 19-21절). 각 단락은 “나 주 여호와와가 말하노라”로 시작한다. 1-6절은 두로 멸망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7-14절은 첫 번째 단락에 세부 사항을 덧붙여 주고 있는데 그 멸망을 주도할 대리인 느부갓네살을 통한 즉각 심판을 묘사하고 있으며, 15-18절은 두로 멸망에 따른 국제적 반응을 알려주고 마지막 단락은 두로 멸망에서 아훼의 역할을 확증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산 자들의 땅에는 아훼께서 영광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념과 약속이며 이와 대조되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 스올로 내려가는 두로의 모습과의 극명한 대조이다. 두로의 멸망은 동일한 반복구조로 끝난다.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26:21절, 27:36 후반절, 28:19 후반절. 산 자의 땅에서 지하 세계의 땅으로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할 만큼 완전하고 깨끗이 옮겨 간 두로와 그에 반해 두로가 비웃었던 예루살렘 땅, 아훼가 영광을 주고 계신 땅이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다. 이러한 대조는 애굽과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발전되고 있다(32:17-32). 여기서 우리는 산 자의 땅과 죽은 자의 스올과의 명백한 대조를 발견한다. 산 자의 땅은 아훼가 영광을 주시는 땅이며, 죽은 자의 스올은 아훼의 임재가 없는 흑암과 혼돈과 깊음의 물에 잠긴 땅이다.

그러므로 산 자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훼의 약속을 환경과 상관 없이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편 27:13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와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시편 116:9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도다”, 시편 142:5[6]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

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등과 같은 다윗의 고백처럼, 생명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체험할 수 있는 터전이다.

둘째로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놀라운 대조를 신약의 비유에서 다시금 깨닫게 된다. 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이다. 스올과 천국의 놀라운 대조와 아울러 스스로 옳다 여기며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여기는 부자와 그 이름 나사로(“하나님이 도우셨다”)에서 발견하는 뜻과의 대조이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과 심판 그 구분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목표는 열방이 그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25:5, 11, 17; 26:6; 28:19; 29:6 등).

:: 홍성민 서강대학교(B.E.)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석사과정 구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비상임 연구원으로 있다.